

사업·방송 전방위 활약... 썬더족 다룬 예능 MC 출연

홍진경은 1993년 고교 1학년 때 제2회 슈퍼엘리트 모델대회 참가해 베스트 포즈상을 받으며 모델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에 진출해 이영자와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기쁜 우리 토요일'의 인기 코너 '영자의 전성시대'의 버스 안 내양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후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에 출연하며 종합무진 활약했다.

2003년 5세 연상의 사업가 김정우 씨와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2004년 어머니와 함께 김치 사업을 시작하며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더 김치'라는 세련된 브랜드명시원한 김치 맛모델 출신 특유의 감각이 담긴 세련된 포장 용기가 입소문을 타 전국적으로 인기가 확산됐다. 2006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김치부부 대상 수상 등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린 홍진경은 김치와 만두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홍진경'을 통해 만두 사업에도



진출해 지난해 회사 누적 매출액 3000억 원을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업가로서 자질을 보였던 그가 2007년 KBS 라디오 '홍진경의 가요광장'을 통해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이어 2014년에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여자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의 고교 동창생이자 만화방 주인 홍사장 역을 맡아 재미 요소로 더해지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러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제2 전성기를 맞았지만 난소암 초기 판정을 받는 고

난이 찾아왔다.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방송 활동을 쉬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선사했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덕분인지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2015년에는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이듬해에는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에 출연해 '갯감치' '욕망 기린' 등의 독특한 캐릭터를 별칭을 얻어 주가를 올리는 등 '대세 예능인'임을 입증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인기 가수에 도전하기 위해 결성한 프로젝트 걸그룹 '언니쓰'의 멤버로 깜짝 변신해 화제가 됐다. '언니쓰'는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셋 업(Shut Up)'의 음원을 공개했고 출시 직후 여러 음원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편 홍진경이 이달 첫 방송 예정인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한다. '다 컸는데 안 나가요'는 높은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청년 2명

중 1명이 썬더족(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이라는 요즘 시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홍진경을 비롯해 래퍼 하하·개그맨 남창희가 MC를 맡았으며 배우 박해미·황성재, 래퍼 지조, 배우 신정윤, 그룹 인피니트 동우가 출연한다.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홍진경은 "썬더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 따뜻한 케미를 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타들의 모습이 궁금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업·방송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는 전용면적 273.82㎡(약 82.83평) 규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오보에힐스(사진) 한 호실을 2021년 3월 29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호실은 지난해 공동



홍진경

방송인
주식회사 홍진경 대표이사

연합뉴스

주택 공사가로 24억2200만 원이며 현 시세는 30억 원 이상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제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오보에힐스는 음이 높은 나무피리라는 뜻의 프랑스어 '오브와(hautbois)'에서 유래한 목관악기 오보에(oboe)를 차용한 명칭으로 관악기에서 퍼져 나오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선율을 연상케한다.

마당과 테라스 공간이 마련된 단독주택형 구조로 454~482㎡(약 137~146평) 총 18채로 이뤄져 있다. 각 가구는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구성됐고 지하 2층은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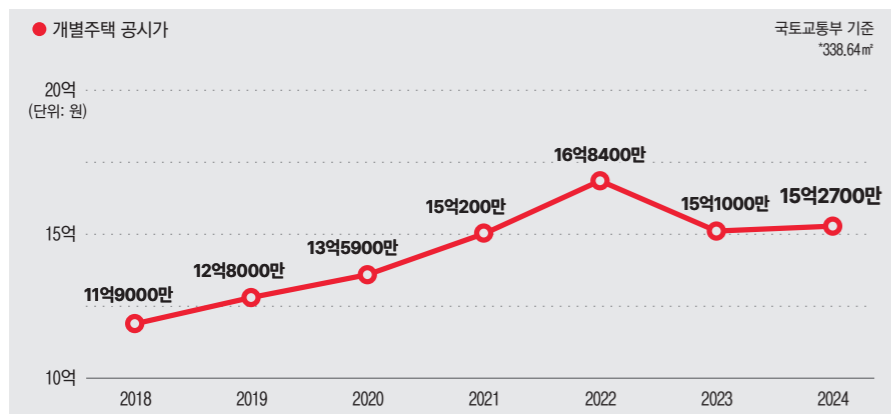
지하 1층~지상 2층은 침실거실·주방·욕실 등 생활 공간으로 활용된다.

경사지라는 입지 여건을 활용해 가구별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특징으로 각 가구에서 북한산·인왕산·북악산·경복궁·삼청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다.

단지 내에 파티장이나 사교 장소로 활용 가능한 선크정원을 조성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디지털 홈 네트워크 시스템·중앙 집선식 청소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활이 편리하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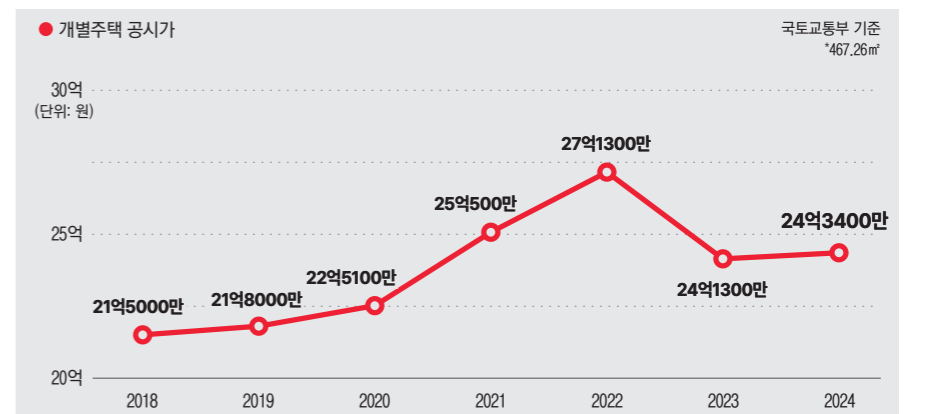
단독주택



오보에힐스



단독주택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이사 사장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에 입사해 대한텔레콤(현 SK)을 거쳐 1994년 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겼다. SK텔레콤에서 CRM본부장·인터넷전략본부장·비즈니스전략·플랫폼경영실장 등을 지내면서 2004년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2009년에는 SK브로드밴드와의 유무선 결합 강화를 주도했다.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이듬해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안 사장은 SK텔레콤과의 사업 공조를 비롯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등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사업을 궤도에 올려놨다. 2015년 만성직자에 시달리던 SK텔레시스 사장에 취임해 7년 만에 흑자전환이라는 성과를 냈다.



최명주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최명주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대구상고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계에 발을 들였다. 국제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 국제금융국 컨설턴트·교보증권 대표이사·GK 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을 거친 금융시장 전문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인 2012년 포스텍기술투자(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2015년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맡아 폐사(포스코건설 사우디) 설립의 총괄업무를 담당했다.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그는 2014



년 1월 권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 내정자로 확정되면서 발족한 경영권 인수인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인 혁신포스코1.0추진반의 총괄을 담당했다. 혁신포스코1.0추진반은 포스코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토대로 새로운 경영비전 수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조직이었다.



지창배 전 청호컴넷 회장

지창배 전 청호컴넷 회장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9년 현금입출금기 제조사 청호컴넷에 입사해 통신사업부문과 금융자동화기기 사업부문을 거쳐 2007년부터 총괄사장을 지냈다. 총괄사장 취임 후 해의 사업에 집중해 중국 교통은행·건설은행에 처음 수출길을 뚫었다. 2011년도 임원 승진 인사에서 회장으로 진급했을 때 회사 관계자는 "그의 승진을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중국 시장 수출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통답계 한·중전선협회 회장을 계속 역임했으며 재임 중 중국 쓰촨성 인민정부로부터 대외교류



협조고문에 위촉되기도 했다. 2020년 청호컴넷 매각 후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투자 사업에 집중해온 그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